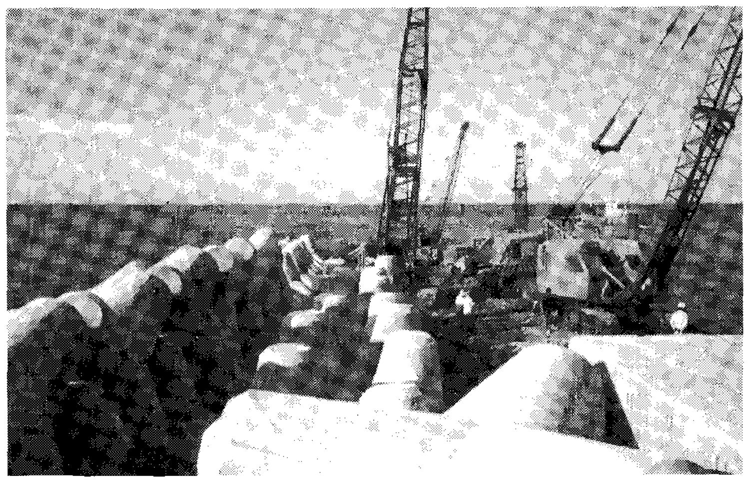
漁港法改正案 臨時國會上程예상
施行令등 後續措置 서둘러

1·3種漁港擴大指定등
施設·機能도 支援


수산청은 어항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 후속조치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수산청은 올해 1·3종어항 수축사업에 4백10억원을 투자, 전남마량항등 11개항의 기본시설을 완성하고, 유지보강사업에도 91억원을 투자, 노후 및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청은 또 올 임시국회에 통과될 전망인 어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제정등 후속조치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어항시설 사업의 투자방향을 개발중인 항의 조기완성 촉진과 어항개발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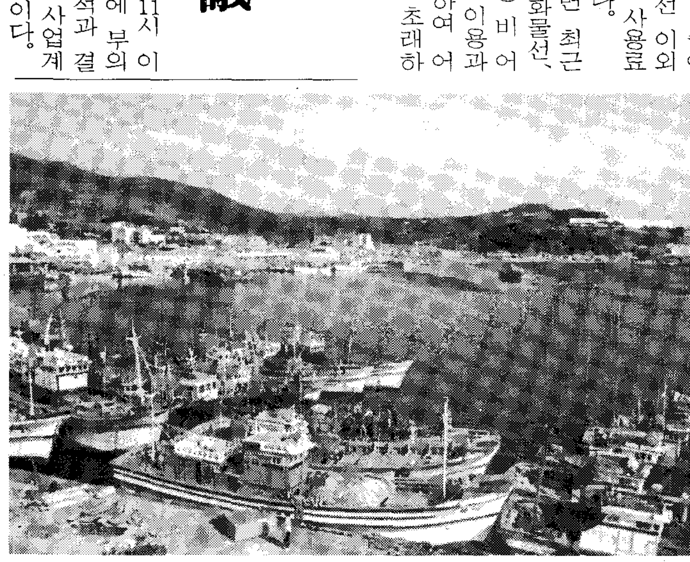
이와함께 수산청은 현재 개발중인 83개 1·3종어항의 기본시설을 96년까지 완성하고 93년 이후부터 총 2조6천4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어항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정 개발, 전어선의 안전수용은 물론 기능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1·3種港이용漁船 外船舶
使用料징수
水産廳서검토

수산청은 어항의 무분별한 이용과 장기체선을 지양하여 어항이용질서를 확립키 위해 1·3종어항을 이용하는 어선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항에서는 화물선、유람선、운반선등 비 어로선의 무질서한 이용과 장기체선으로 인하여 어항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용질서가 문란한 실정이므로 어항내 비 어로선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장기체류를 통제하고 인근 항만의 이용을 유도하여 어항기능 및 이용질서 유지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안벽、물량장、선착장등 접안가능한 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연안여객선 1척당 1개월이하 3천6백90원、기타 선박은 50톤당 1척 1개월이하 1만원의 접안료、어항내 수역에 정박하는 선박 50톤당 1척 1개월이하 5천원의 정박료、어항시설물상에 야적하는 화물등은 1㎡당 1개월이하 국유재산사용료산정의 야적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어항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3종항의 어선외 선박 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清掃船모델開發評價會
機能·규모등討議
水産廳·漁港協등關聯機關·단체參席

수산청은 올해부터 어항청소선 및 어항감시원 제도를 운영키로 함에따라 1월 11일 어항청소선 모델개발 평가회를 개최、청소선의 기능을 항내부유물 및 해저침전물 제거로 잠정 결정하고 청소선의 규모와 설비등 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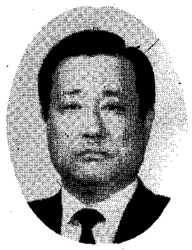
수산청 및 수산진흥원、어항사무소장、수협중앙회、어항협회、기술용역업체、어선협회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모델(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외국청소선에 대한 비디오 상영、청소선의 기능과 규모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漁港協 第6期定總 2月19日
올事業計劃등審議
建設會館에서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2월19일(금)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6기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어항사진전시회와 특별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협회는 총회에 앞서 2월10일(수)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총회에 부의할 9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및 금년도 사업계획등을 심의할계획이다。

主要漁港에 請願警察
利用秩序 적극 確立
올해 11個港을추가 完工키로
尹沃榮청장 新年辭천명


尹沃榮 수산청장

윤옥영수산청장은 계유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어촌을 보다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새해에도 전국의 어민과 수산관계자의 훌륭한 의견을 수렴하고、창의와 정성을 다하여 수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옥영청장은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5백17억원이 증액된 3천9백2억원의 정부예산과 영어자금 7천억원、수산진흥재정자금 55억원、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천1백75억원등 총규모 1조3천1백32억원을 투입하여 △기르는 어업 진흥 △어장관리와 환경보전 강화 △원양어업의 안정적 육성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어업기반시설 확충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 △어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옥영청장은 기르는 어업과 관련、『수산자원증강과 양식어장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1만헥타의 연안어장에 어초시설을 투하하여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충남태안에 현대적인 대규모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한편 각종 우량종묘 9천1백만마리를 생산하여 바다에 방류하고 어민에게 분양하여 연안어장의 자원증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어가소득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살리기汎國民運動으로昇華
헬機利用汚染早期警報체제構築

윤옥영청장은 또 어장관리 및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연근해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부존자원상태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등 어선어업의 정비를 추진하고、국내 최초로 어장정화선 2개선단 8척과 어항청소선 1척을 건조 운영하여 오염된 양식어장의 바다밑 퇴적된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바다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스치로폴부자를 개량부자로 대체하는등 적극적인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바다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 하는 한편、헬기를 이용한 어장환경 예찰과 기동성 있는 해난구조 및 적조등 해양오염 조기 경보체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기필코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윤옥영청장은 『현재 총3백99개 지정어항가운데 1백58개 어항을 완공하였으나 올해에는 11개항을 추가 완공하여 어항시설을 더욱 확충할 것이며 금년부터 주요 어항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어항이용질서 확립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4천3백톤의 노후어선과 2만6천마력의 어선기관을 대체하는등 어로시설의 현대화에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앞으로 어항의 기능시설 확충과 어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어항법 및 어선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옥영청장은 이와함께 원양어업의 안정적 육성과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어민지원사업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 놓인 수산업에 활력을 넣고 과거와 같은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 정성을 다해 땀흘려 노력한다면 수산업의 밝은 내일이 반드시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어민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漁港消息

발행겸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라3459
등록일:1988년2월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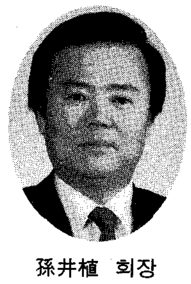
會訓
創意 奉仕 誠實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法定法人전환에總力 政府기능代行可能케

漁港人·協會 權益 향상 寄與 期待

孫井植 회장 새해 인사 말씀



孫井植 회장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정말 황망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지각변동, 우루과이라운드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일대 변혁, 그리고 거품경제의 해소뒤에 우리를 강타한 경기침체는 우리 어항인 모두에게 적지않은 당혹감과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대통령 선거 열기는 시간을 더해가면서 정국을 온통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리둥절할만큼 숨가쁘게 보낸 그런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협회는 미흡하긴 해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어항인의 지위향상, 그리고 어항산업의 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짧은 창립의 연륜이면서도 협회 자체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보람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순수하게 어항인 모두가 참여하여 벽돌 한 장을 쌓는 기분으로 마련한 협회 사무실은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항인 모두가 협동 단결하면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 어항인 모두에게 길이 기억될 쾌거로 확신합니다.

또한 협회내에 어항어촌개발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큰 성과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가동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협회는 어항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라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소에서 어항과 어촌에 관한 연구가 충실히 수행된다면 낙후된 우리나라의 어항산업을 지금보다 몇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漁港·漁村開發研究所 활성화注力
어항發展에새로운里程標설정할터

특히 어항법 개정은 지난해의 가장 큰 성과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여년을 끌어온 어항법을 어항현실에 맞게, 그것도 우리 어항인의 노력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어항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커다란 사건으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로 인한 국회 일정 조정으로 의결이 올해 임시국회로 이월되긴 했지만 이번 어항법 개정은 어항인의 문제는 어항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소중한 시금석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난 한 해 우리 어항인에게 내내 밝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로 유감스런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어항예산의 감축일 것입니다.

그동안 어항투자예산의 감축이란 돌출적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어항인들로서는 실로 엄청난 충격을 금치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번 결과에서 어느 한시도 방심해서는 어항산업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안정속의 개혁을 표방,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끝에 32년만에 탄생한 차기문민정부에서 「어항수축사업을 확충하고 다목적으로 종합개발 하겠다」는 공약과 정부의 직제 개편을 할 때 수산해양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다의 소중함을 아는 정부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항투자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항인 여러분!

우리 앞에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벅찬 희망과 용솟음치는 도약의 새해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협회 역시 언제까지 창립 초창기의 어려움에 연연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찬란한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협회의 새해 중점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어항어촌개발의 촉진과 어항관리운영의 효율화 도모, 둘째, 어항기술의 발전과 어항관계자의 공동이익 증진, 셋째, 어항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기능 강화, 넷째, 어항문화 창달과 어항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 다섯째, 협회 자립기반 및 조직강화로 기능과 역할 증대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협회가 총력을 기울일 분야는 우선 개정된 어항법이 공포되면 협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법인 형태의 법정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정부의 크고 작은 기능을 대폭 이양받거나 대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사된다면 협회와 어항인의 대내외 지위는 아마도 지금과 달리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항어촌개발연구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어항인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은 바로 어항과 어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연구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발굴한다면 어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협회가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항인 여러분!

이제 반목과 질시와 분열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개혁, 창조의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어항인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한국에 걸맞는 새로운 어항인의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항인의 앞날은 어항인 스스로가 개척해야만 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동안 어항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엔 우리 어항가족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프루프工法新設등
工事표준품셈調整

93년도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할 건설공사표준품셈에 파이프루프공법등 20개항목이 신설되고 철도 궤도공사등 기존품 67개항목이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됐다.

건설부는 1월4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부건설공사표준셈중 토목 58개, 건축 7개, 기계설비 22개등 모두 87개항목을 신설 또는 보완,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공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항목을 공종별로 보면 토목의 경우 △파이프루공법, △텍솔공법 △차수재설치공 △미끄럼방지공 △나선형파형강관접합 및 부설 △전석쌓기 △표준품셈보완실시 △철제조립식 구조물 △법면다짐기 △파이프추진기 △건설용리프트 △텍솔공법적용에 따른 실사출기등 신공법 또는 신자재 및 장비개발에 따른 품이 새로 제정됐다.

보완내용중 토목의 경우 △목침목 또는 PC받침을 이용한 궤도공사 △궤도 자갈살포다지기 △궤도공사 기계화시공등이 기계화품으로 바뀐 것을 비롯 △조립식U 형플륨관 △중기주기장산정기준 △소일시멘트 월공법 △호안용시멘트블록제작 △항공사진 촬영등 현실에 맞지않는 42개항목이 조정됐다.

動靜

▲윤옥영수산청장은 1월4일 아침 동작동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93년도 중앙시무식에 참석, 이어 수산청시무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 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93어기 한·불 어업회담단을 접견, 15일에는 전남부안군 합구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를 격려.

▲하성환수산청 차장은 1월 6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13일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설날물가대책차관회의에 참석.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이방호수협중앙회장은 1월6일 김영삼차기대통령 초청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수협중앙회 서울시지회 현판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을 독려, 15일에는 전국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손정식한국어항협회 회장은 1월4일 수산청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11일에는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요수산단체장간담회에 참석, 이날 오후에는 수산청에서 열린 어항청소선 모델개발평가회의에 참석, 12일에는 63빌딩에서 개최된 김종필 민자당대표위원 주재 농수산단체장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 수산해양부 신설과 관련한 수산단체장 회의에 참석.

▲배환갑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4일 부산호텔에서 열린 전국목사장로회 모임에 참석, 5일에는 창원에서 열린 팔각회 총재단 회의에 참석, 14일에는 고성군청에서 열린 가야문화재 회의에 참석.

▲최상옥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구랍23일부터 1월3일까지 8·5광우회에서 주최한 뉴우질랜드 호주 산업시찰에 참가, 4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5일에는 김종호 전 건설부장관 초청만찬에 참석, 15일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검도회 총회에 참석, 이날 오후에는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간담회에 참석.

▲양성후세기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6일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시무식을 개최, 11일에는 제주도지방검찰청 소년선도위원회 시무식에 참석, 14일에는 제주도 하니호텔에서 열린 한란라이온스클럽 행사에 참석.

▲정덕용주식회사삼건사 대표이사는 1월4일 항만청 신년교례회에 참석.

▲고제철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에 참석, 16일에는 전남도농수산물전시판매장에서 개최된 93설맞이 농수산물 큰잔치 행사에 참석.

▲조남욱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1일 대한건설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6일에는 21세기정책연구원 이사모임에 참석, 14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친선협회 신년하례회에 참석.

▲송재성주식회사성호 회장은 1월7、8일 여수、11일에는 삼천포 현장에 출장.

인사이동

▲수산청은 1월16일자로 국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설국장 박광훈 △국립수산물검사소장 유중오 △부산공무원교육원장 성기헌 △중앙공무원교육원 임종국.

수산청은 또 1월25일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청장비서관 배계남 △감사담당관 김하섭 △시설과장 오진수 △원양생산담당관 안국전 △제주수산연구소장 김성채 △국방대학원 최재양

(승진)△국립수산진흥원 서무과장 박정태 △대천수산연구소장 박동욱.

▲수협중앙회는 1월1일자로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홍보실장 이우섭 △유통계획부장 최병국 △노량진지점장 황경수 △종로지점장 임경렬 △전북도지회장 한상일

(전보)△총무부장 이명의 △어로통신부장 민춘식 △판매사업부장 김용웅 △가공사업부장 정정배 △저축부장 김봉진 △서울시지회장 김만종 △경남도지회장 이옥천 △제주도지회장 정해성 △금융계획부장 정철석 △공제사업본부장 김승렬 △안전관리실장 채희선 △검사부검사역 이성찬·김정익.

개설

▲수협중앙회는 구랍29일 인천시남동구구월1동 1266~2번지(모래내시장내)에 수협직영 수산물직매장을 개설했다. 전화:(032)461-4285

▲수협중앙회는 구랍29일 전남순천시장선동211번지에 순천지점을 개설하고 일반은행업무를 개시했다. 전화:(0661)742-3191~4.

회비납부

■단체

(분담금)

▲임광토건주식회사(회장 임광수)

▲조흥공영주식회사(대표이사 박규언)

(연회비)

▲삼천포수협(조합장 박영갑)

■개인

(평생회비)

▲유간성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연회비)

▲홍효선씨(수산청 어선4)

最低價낙찰·業體增加 外形늘어도 제값 難望

올國內건설展望 建設공사受注는늘어

올해 국내 건설업은 공사수주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대거 참여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에 따른 경쟁심화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올해 국내 건설업 경기전망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건설경기진정책의 완화등에 힘입어 건설공사 수주액이 39조 5천9백억원 규모에 달해 지난해(증가율 5·9%)에 비해 14%가 증가, 외형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올해 8백4개사에 이르는 신규업체의 건설시장 진출로 이들 업체가 민간건설부문에서 2조2천5백억원 가량을 수주하는등 기존업체와의 시장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가낙찰제등으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힘들어지는등 건설환경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이 전년에 비해 11·1% 증가 17조 5백억원, 민간이 16·4% 증가 22조5천4백억원 규모의 계약이 예상되고, 공종별로는 토목이 18조 6백억원(37·1% 증가), 건축이 21조5천3백억원(0·1% 감소) 등으로 추정된다.

또 건설공사 기성액은 40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기성실적 33조 2천6백억원에 비해 21·8%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건설자재가는 전년대비 5% 정도 상승되고 건설기능공의 임금은 10~11% 정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93年漁港시설事業關係者회의

品質관리徹底·經濟施工등協議

올들어 첫 어항관계자회의가 열려 어항시공의 품질 관리등 현안이 협의됐다.

老朽裝備 자재交替 「作休」·품셈適用등

漁港課長등27名참석 92施工評價도

수산청은 1월 11일 93년도 어항시설사업 설계기준과 관련, 관계직원회의를 열고 노후된 장비와 자재를 교체 또는 폐기하는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어항시공을 위해 토의했다.

어항과장등 관계직원 2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작업휴지계수를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양장의 측구두껑은 견실시공과 미관을 고려 스틸그래팅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또한 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품셈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자재단가는 공사발주 당시의 조달청가격정보 또는 물가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어항시설공사 시행 및 품질관리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추가공사를 제외한 92년도 계획공사는 기한내 다 차질없이 준공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품질관리에 대한 공사관계자의 인식도 크게 제고되어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콘크리트표면처리 및 외적 미관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勞賃現實化멀어 建設社대표主張

건설업계는 공공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폭을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1월15일 조달청이 마련한 대형건설업체(1군)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은 조달청제한군편성 및 운용에 있어 해당군 전 업체를 지명하는 현행 운용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군편성시 업체수를 줄이든지 군별로 2~3개조를 편성해 과당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쟁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달청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시설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예가 대비 87% 선에 머물고 있어 상당량의 공사가 직접공사비 수준에서 낙찰돼 품질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을 뿐아니라 기업경영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최저가 낙찰제 및 P·Q제등 주요현안에 대해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建築공사入札內譯書간소화 摸索

制限群도 土木·建築분리

조달청은 올 제한군 편성시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운영하고 사전자격심사제(P·Q)를 공종별로 적용, 건설업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낙찰자에겐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대계약제도 및 시공감리자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월16일 조달청이 마련한 93년도 중점추진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설부가 올해 토건업 도급한도액산정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해 책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올 제한군편성시 토목, 건축으로 분리 운용키로 했으며 지난해말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으로 업체수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군수 또는 군별 업체수를 조정키로 했다.

이처럼 제한군 편성을 개선키로 한 것은 아파트등 단순공사 실적업체가 지하철, 플랜트공사를 수주하는 문제점이 노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적 시공업체 선정을 통한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P·Q제를 도입키로 하고 상반기중 실시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도입초기에는 현행 군제한 또는 실적제한 경쟁방법등과 병행 운용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지하철·댐·교량·플랜트등 공종별로 적용, 건설업 전문화를 유도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위해 업체별 사전자격심사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자격심사운용계획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土木構造物

設計·施工일괄受注

日社 컴퓨터支援시스템開發

일본 大成건설은 토목구조물의 설계, 시공일관수주가 가능하도록 해양시설 설계등 7종류의 개별시스템을 통합한 토목설계 CAF시스템을·개발, 자사의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분석에서 시뮬레이션구조해석 제도 수량계산 적산등 설계 업무의 모든 공정을 종합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의 CAD 시스템으로는 대응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다.

토목시설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용도 및 구조형식에 따라 설계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등에 비해 시스템의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大成건설은 단일 시스템이 아닌 시설분야별로 복수의 개별 시스템을 개발, 이 문제를 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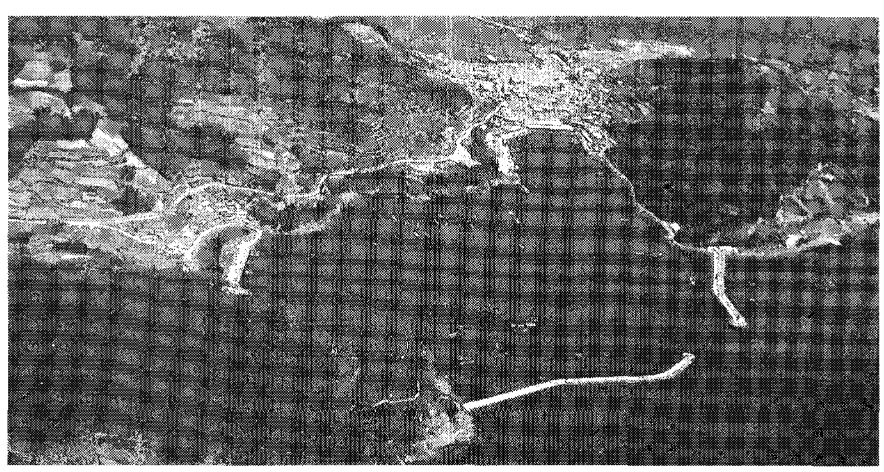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PC 교량설계CAD 시스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교량), 해양시설설계(호안, 잔교, 방파제등), 탱크기초설계CAE 시스템(탱크등 플랜트기초일반) LNG 지하식 저조설계 CAE 시스템(등 LNG 지하탱크), 골프장 CAD 시스템 선형계획 CAD 시스템(철도, 도로, 관로등), 해석 CAD 시스템, 지반해석CAE 시스템등 7종류이다.

이들 시스템은 EWS(엔지니어링워크스테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 환경아래서 대화형에 의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

어선은 내몸같이 어항은 내집같이

어항표어

완벽한 漁港건설로
福祉漁村정주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조어항 전경〉

水産廳南海漁港事務所

所　長　金烔寅
管理課長 朴德萬
工事課長 朴英哲

전남 여수시 봉산동 100-9번지 TEL : 0662)41-3361~2, 43-1339 FAX : 0662)41-2505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 要領

〔44〕

나. 하별소의 규모와 소요면적

하별소(上屋)규모의 산정

① 하별소 규모산정 방법

하별소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S = N/R \cdot \alpha \cdot P \cdots (1)$

여기서

S:上屋의 소요면적(㎡)

N:1일당 계획취급량(kg/일)

P:단위면적당 취급량(kg/㎡)

R:上屋의 회전수(회/일)

α : 점유율

점유율 : 상옥면적은 실제로 어획물이 점유하는 면적, 어획물의 선별을 위한 면적, 소운반을 위한 통로 빈상자의 치장등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어획물이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의 상옥면적에 대한 비율을 점유율이라 한다.

여기에 대입되는 N, P, R, α의 각 수치에 대하여는 〈표〉의 검토할 사항란에 표시한 것과 같이 종류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용이하게 결정할 수 없다.

하별소 용지계획 수속표

手順 事項	Ⅰ. 일당계획양륙량의 산정→	Ⅱ. 양륙해안연장의 산정→	Ⅲ. 하별소면적의 산정→	Ⅳ. 형상, 위치의 결정→
검토할 사항	1. 계획목표연차의 결정 2. 목표연차의 연간 양륙고 3. 목표연차 최성기 월간양륙고 4. 목표연차 어업종류별, 어종별양륙고 5. 양륙량의 추이(어업종류별, 어종별) 6. 일별 양륙량 빈도 분포 7. 최성기 상위 10일간의 양륙량 8. 양륙량의 어종별 구성 9. 기타	1. 양륙어선류(어업종류별, 선형별) 2. 안벽 사용시간 3. 안벽이용회전수 4. 단위 길이당 양륙능력 5. 1척당 양륙량 6. 1척당 양륙량 소요시간 7. 안벽 접안방법과 단위 어선 길이 8. 기타	1. 선별의 필요, 불필요 및 기타비율 2. 직종경매의 비율(경매의 방법) 3. 화물형태(상자, 노, 그릇, 기타) 4. 정열방법(일렬, 쌓기) 5. 이용배분률(선어, 가공냉장향 비율) 6. 반출방법(화차, 트럭, 기타) 7. 양륙, 선별, 싣는 방법(인력, 기계) 8. 단위 면적당 처리량 9. 어획물 점유면적률 10. 하별소 회전수 11. 육상반입량의 유무 12. 적재 장 13. 부속시설 14. 건물 건폐율	1. 안벽 연장 및 방향 2. 폭원 3. 최다 풍향(방위) 4. 일사방향(방위) 5. 어선 조선의 난이 6. 배후지의 상황(반출의 난이) 7. 간선도로와의 연락 8. 기타 시설과의 관련
상기사항의 참고수치 및 산정방법	1. 계획목표연차 : 현재는 10년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2. 목표연차의 양륙고 : 과거의 실적 구성추계및 정책적 고려요소를 가한다. 3. 1일당계획양륙량 : 실적에 의해서 최성기 상위 10일간의 양륙고 평균치를 산출하여 그것과 2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4. 1일당계획량의 어종별 구성 : 과거의 실적 및 정책적인 고려등에 의해서 추정 5. 기타 :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상에서는 과거의 실적에서 추산하여 정하는 것이 많다.	1. 양륙어선수 : 1일당계획양륙량의 산정에 사용한 양륙일의 이용어선을 근거로 하여 목표연차의 1일당 이용 어선수를 정한다. 2. 안벽이용시간 : 계획연장산정등에 사용한 양륙안벽의 사용시간은 3~4시간을 한도로 한다. 3. 안벽단위당 양륙능력 : 현재 하별방법에 대한 경우는 대략 150~250 kg/m/h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4. 안벽회전수 : 대규모 어항 또는 대형어선의 안벽은 1~2회전 정도, 소규모어항구역은 3~4회전을 표준으로 하고 많을 경우 6회전이하로 한다. 5. 1척당 양륙량 : 과거의 실적 및 어선의 대형화 경향등을 고려하여 정하나 통상은 어선톤수의 0.5~0.7 정도가 한도이다. 6. 접안방법 : 횡부	1. 상기항목중 1~7에 대하여는 과거 및 현재의 실정등을 참고로 하여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정한다. 2. 단위 면적당 어획물 처리량 : 상자 길이(적재수와 다름) 150~200kg/㎡ 대형 100kg/㎡ 기타 50kg/㎡ 정도로한다. 그릇, 자루 150kg/㎡ 3. 어물처리 이용가능면적율(점유율) 0.3~0.5정도를 목표로 한다. 4. 하별소 회전수 : 1~2회를 한도로 계획한다. 5. 건폐율, 도시계획법 준용지구로서 정해진을, 기타에 대해서는 0.6~0.7을 목표로 한다.	1. 길이 : 육양 안벽의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폭원 : 양륙에서 반출까지 가급적 가로로 흘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폭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어선의 어획물은 그 어선의 안벽 점유길이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형상 : 1.2의 수치와 Ⅲ에 의해서 구한 면적에 의해서 정한다.
상기치 및 방법의 문제점	1. 최성기 일간의 평균치를 계획 양륙량 산정의 기준으로한 면적, 이것이 연간 하별소 이용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2. 어종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륙량의 다소만으로는 표준일을 정하는것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	1. 안벽의 단위당 양륙 능력은 하역의 기계화에 의해서 현저히 늘어남 2. 안벽의 사용시간은 현재의 시장개설 시간을 참고로한 것이므로, 금후 노동환경 변화등에 의해서 주간 하역으로의 변화도 고려하고, 사용시간도 변해가는 것을 예상한다. 3. 안벽 양륙능력, 회전수등은 5톤이하의 소형어선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는다.	1. 김, 패류등이 주체가 되어 어항 또는 하별소를 필요치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하역방법(선별, 정열, 반출)의 변화에 의해서 점유율을 저하시키는 것은 장래에 대한 여유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3. 적재수에 대해서는 다획성 대중어의 경우 7~10단 정도가 보통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의 용이, 가격유지에는 단수가 낮은 것이 좋은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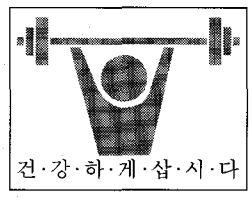
요즘은 아침시간이 바쁘다 보니 아침을 거르거나 서구에서처럼 커피만 마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 체중조절을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침식사는 생활의 활력소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이다.

우리가 수면중에 아무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뇌와 근육 및 전신의 세포가 그 내부에서 비교적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백~5백 칼로리정도 즉, 가벼운 한끼분의 식사에 해당되는 양이 수면중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밤사이에 소모된 에너지와 아침식사 후 점심까지 약 4~5시간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오전 중 활동을 시작하기전 아침식사를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침식사를 거른 사람은 아침식사를 한 사람보다 언제나 불충분한 하루의 음식물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대신 점심식사를 풍족하게 하거나, 점심도 간단히 한 경우에 모자라는 분량을 저녁식사에서 충분히 보충한다고 해도 대개는 권장량의 영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

한편 부족한 양을 저녁에 한꺼번에 먹거나 사람에 따라서 밤참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침에 식욕이 떨어져 세끼의 식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다시 밤참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아침식사를 거름으로써 하루에 섭취해야할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쉬우므로 저칼로리식을 한다면 영양부족이 되기 쉽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칼로리라고 해서 채소나 버섯류 해조류 곤약등으로만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적당량의 단백질 식품, 지방식품, 당질식품을 한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밥, 김치)는 5대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개 아침에 식욕이 떨어진 이유가 장이 둔화된 활동 때문이므로 일어나자마자 냉수나 찬우유를 마셔 위장을 자극하거나 과일주스 또는 요구르트도 좋지만 위장장애, 특히 궤양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꼭 아침식사를

밥·국·김치는우수영양식

아침식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다시 밤참을 먹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아침식사를 거름으로써 하루에 섭취해야할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쉬우므로 저칼로리식을 한다면 영양부족이 되기 쉽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저칼로리라고 해서 채소나 버섯류 해조류 곤약등으로만 식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시 적당량의 단백질 식품, 지방식품, 당질식품을 한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밥, 김치)는 5대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개 아침에 식욕이 떨어진 이유가 장이 둔화된 활동 때문이므로 일어나자마자 냉수나 찬우유를 마셔 위장을 자극하거나 과일주스 또는 요구르트도 좋지만 위장장애, 특히 궤양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稅務안내

영세율 적용

輸出상품國際競爭力높여

영 세 율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0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출업자가 100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하여 2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면 원자재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10만원(100만원×10%)을 납부하지만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00만원×0%=0) 따라서 0-10만원 = -10만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출업자는 이미 납부한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서 소비지 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입하는 쪽에서 수입국에 세금을 내게 된다.

결국 영세율제도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영세율적용 대상자

영세율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등은 수출을 하더라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사이에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법인에게 면세를 하면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적용대상 거래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항공기의 외항용역
- 기타 수출지원, 외화획득사업

영세율 적용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화의 수출

수출업자가 직접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업자가 영세율의 혜택을 받으나, 대행 수출인의 경우 수출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실제 수출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기타 외화획득 사업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 외항선박에 물자 등을 공급하는 경우,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외국관광객에 대한 판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제도

면세제도의 의의와 취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거래의 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자기가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받지 아니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필품 공급이나 국민후생사업 등에 적용된다.

곡류, 육류, 어패류 등의 식품은 1차 상품 그대로이거나 정미, 제분, 냉동, 포장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맛소금, 맛김, 조미쥐치포 등 조미한 것이나 통조림, 병조림 등은 면세가 안된다. 다만, 간장, 고추장, 두부, 젓갈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지만 우리 전통식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면세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등은 면세되나 가공된 공예품 등은 과세된다.

국민후생 용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병리사, 약사, 장의사, 청소업 등 자격을 갖춘 후생용 용역은 면세사업이다.

또 허가나 인가된 학원, 유치원의 교육 용역, 교통용역중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일반시외버스, 여객선의 운송용역도 면세된다.

♣ 稅務안내